

2007 남북 정상회담

남북정상에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박3일 일정의 방북길에 오른다. 광주일보는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광주·전남 각계 인사들의 기대를 들어봤다.

MDL 넘을 때까지 국민에 일일이 보고

〈군사분계선〉

靑 의제·의전·경호 등 준비 완료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청와대는 '평양 2박3일'에 대한 준비를 거의 마무리 짓고 만의 하나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해 막판 점검 작업을 벌였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은 어느 정도 구축된 남북 교류협력 기조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디딤돌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한 분위기다.

회의실에서도 문재인 비서실장과 백종천 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전략 회의를 하는 등 본초를 아껴가며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도 정상회담 첫 날인 2일 오전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부재하고 특히 총부리를 맞고 있는 북측의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MDL을 넘는 순간부터 3일간 24시간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간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차 계룡대로 오기는 대통령 전용 열차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동질성 회복 교류 물꼬 트였으면

강연균 화백



두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됐기 때문에 문화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교류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교류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경제단체·기업 경험 참여 확대 되길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남북경협은 무엇보다 인적·물적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육상교통을 통한 교류에 대한 협의도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광주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와 기업들도 남북경협과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

북에 나무심기 사업 제안 했으면

류동훈 행복발전소 사무처장



북한이 수시로 태풍 피해를 겪는 이유는 산림이 황폐화됐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나 국민이 직접 북한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주시 바란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의 소아과 의사와 진료체계를 구축, 정기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이 통일 역할하게 문화 개방을

안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남·북한이 실질적인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야 한다. 여성들이 평화통일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계 대표들이 통일을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을 확대, 진정한 의미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중소 진출 활성화 기대

장춘상 중기 광주·전남회장



남북경협은 2000년 정상회담 후 개성공단이 조성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북핵문제, 제도미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활성화가 지연됐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돼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리돼야

이흥길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등 남북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동안 북측은 남북관계에서 수동적인 인상을 풍겼는데, 민족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분열된 민족 화해 결실 계기 됐으면

김희중 광주대학교 교수



남북정상회담은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나 독심을 따져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끊어진 국토를 연결하고 분열된 민족이 화해하는 중요한 결실을 맺기 바란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며 다양한 교류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북 주민 복지 도움되는 교역 늘려야

서삼석 무안군수



북한에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으면 한다. 개성공단의 활성화와 추가공단 사업지 지정은 논의해야 하며,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또 남북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같은 경제공동체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북 지하자원 개발방안 마련 시급

조호권 광주시의회 행정위원장



무엇보다 경제협력의 성과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을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 개성공단의 활성화와 추가공단 사업지 지정은 논의해야 하며,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또 남북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같은 경제공동체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통일 앞당기는 실질적 성과 거두길

서동국 광주대 총학생회장



단순 대선을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통일방안 논의를 진행해 통일일정을 앞당기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또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북, 남측 대표단 어떻게 만나

북한 주요 권력기관과 평양 주민들이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을 맞이 위해 '총동원'된다.

북한의 당·정·군 주요 기관 간부들은 남측 대표단과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분야 행사에서 상대역으로 활동해야 하고, 평양시 주민들은 연도 환영에 대거 동원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 일행이 승용차로 북상하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로변에도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이 2일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는 개성시(김일군)나 황해북도(리사관)의 인민위원장이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영접할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이 평양에 입성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당·정·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이틀째인 3일 플라도 5·1경기장에서 관람할 아리랑 공연엔 관객을 제외하고도 연인원 10만명이 동원될

평양 시민 연도 환영에 대거 동원될 듯



'2007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평양시 중구역의 천리마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돼있다. /연합뉴스

다. 평양 방문 마지막날인 4일 노 대통령이 방문하는 남포 서해갑문과 평화자동차공장 등 과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관람할 것

정형근 "김우중씨 경제특구장관 제안 할 수도"

한나라당의 대북 전문가인 정형근 최고위원은 1일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김우중 전 대구시장(남북)경제특구 행정관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 분위기를 다지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도 감지됐다"면서

으로 알려진 고려의학과대학, 인민대학습당,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에서도 남측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에 모든 힘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산행정보, 코스, 예약처 등)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사 모집, 교육비, 신청처 등)